

## EU, 곡물 수매량 확대

2004년도 2억 8,400만 톤의 소맥 수확을 기록한 유럽연합(EU)은 이로 인한 공급과잉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곡물의 수매(intervention system)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EU는 1,050만 톤의 곡물을 수매하여 비축하였고, 이 결과 수매량은 1,350만 톤 수준에 이르렀다. 이 중 약 60% 정도는 신규 회원국에서 출하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수매곡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수출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 중에 있다. 이를 위해서 EU 집행위원회는 대맥(barley), 호밀(rye), 귀리(oat)에 대해서 수출입찰공고(export tenders)를 내었으며, 추후 이를 소맥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 입찰공고는 수출항에 가까운 지역의 곡물을 선호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신규회원국의 상황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비축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능력이지만, 현재 신규회원국의 비축공간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EU 전체에 시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EU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곡물관리위원회(the Cereal Management Committee)를 통하여 해당 국가들로 하여금 일정량의 곡물을 수매해 줄 것을 제안했다. 대상 국가는 헝가리(320,000 톤), 체코(300,000톤), 폴란드(93,084 톤), 오스트리아(80,663 톤) 등이다.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